

# 신해철의 음악 연구 -넥스트 앨범의 전반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김준수, 조태선\*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 A Study of Shin Hae-Chul's Music -With focus on N.EX.T album-

Joon-Soo Kim, Tae-Seon Cho\*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신해철의 음악은 대중성 있는 음악만을 생산하고, 비슷한 장르나 패턴의 음악만이 주류를 이루던 한국 가요시장에 새 지평을 열어 주었고, 새로운 음악을 갈망하던 대중들의 불평 요소들을 해소시켜 주는데 있어 충분하였다. 그는 발표하는 작품마다 자신의 음악적 가능성을 실험하였고, 이것은 나아가 한국 대중음악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는 호평을 받게 된다. 오늘날 대중음악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창작활동을 통해 작품성과 몰입감을 줄 수 있는 작품들로 대중들에게 어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해철이 이끌었던 “넥스트”가 음악을 임하는 자세는 아티스트로서 자질과 한국대중음악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와 같이 뮤지션으로써의 꾸준한 자기개발과 창작능력을 강화시켜 과감하고 새로운 시도 등으로 활동을 이어간다면 한국대중음악은 ‘K-pop’으로서의 또 다른 유행을 이끌어내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Abstract** Shin Hae-Chul's music opened a new horizon in the Korean pop music market where only popular music is produced and the music of a similar genre or pattern is mainstream, which has dissolved the complaints of the public who longed for new music. He experimented with his musical potential every time he released his work, which received favorable reviews in that he raised the level of Korean pop music. To solve the unstable factors in today's pop music, it is important to appeal to the public by capturing quality work through continued studies and creative activities. In that context, the attitude of "Next" is led by the late Shin Hae-Chul, and his qualities as an artist grea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pop music. This indicates that if musicians strive to develop themselves, and strengthen their creative ability to make bold and new attempts, Korean pop music will lead to another fashionable "K-pop" and will open up a new horizon.

**Keywords** : Shin Hae-Chul, N.ex.T, Rock, Vocal, Character

### 1. 서 론

그의 첫 번째 실험적 음악의 형태는 무한계도로 부터 시작한다. 그 후 솔로앨범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사운드를 구축한 후 마침내 1992년 넥스트(New EXperiment

Team)라는 밴드로 앨범을 발표하게 된다. 그의 음악은 록에 기반을 두고, 다른 장르를 혼합시키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장르의 경계를 허물면서 독창적인 사운드를 생산하고 있다. 그런 음악을 접한 대중들과 국내외 평론가들 에게 신해철은 더 이상 하이틴스

본 논문은 청운대학교 산업기술 경영대학원 2018년도 석사학위논문 요약본임.

\*Corresponding Author: Tae-Seon Cho(Chungwoon Univ.)

Tel: +82-10-2201-9686 Email: entheos@chungwoon.ac.kr

Received November 5, 2018

Revised November 21, 2018

Accepted December 7,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타가 아닌 천재 아티스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한다[1].

그의 음악은 대중성 있는 음악만을 생산하고, 비스한 장르나 패턴의 음악만이 주류를 이루던 한국 가요시장에 새 지평을 열어 주었고, 새로운 음악을 갈망하던 대중들의 불평요소들을 해소시켜 주는데 있어 충분하였다. 그는 발표하는 작품마다 자신의 음악적 가능성을 실험하였고, 이것은 나아가 한국 대중음악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는 호평을 받게 된다. 그리고 발표 되는 앨범들의 변화만큼이나 작품 제작 형태 또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 그가 발표한 앨범 중에는 총 제작비 300만 원 이하 저예산 홈 레코딩(home recording)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고, 그것과는 반대로 3억 원에 가까운 제작비를 투자하여, 서울과 영국을 오가면서, 하이 퀄리티(high-quality)의 웅장하면서 화려한 사운드를 생산해 내기도 하였다. 매 앨범 마다 최고의 사운드를 갈망하면서 크리스 샹그리디(Chris Tsangaride), 이안쿠퍼(Ian Cooper), 믹글로섭(Mick Glossop) 등 세계적인 엔지니어들을 영입하고, 대규모 오케스트라, 4개국의 대규모 합창단과의 협업작업을 진행하였으며, 3집 앨범에서는 한국전통음악인 판소리와 사물놀이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독특한 음악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그의 변화무쌍한 행보는 국내는 물론 해외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 당시 단순히 사랑과 이별 노래만을 발표하던 대부분의 가요들과는 차별화된 철학적인 내용, 자신의 신념 등을 극사실적인 무거운 주제들을 가사로 사용하면서, 자신만의 확고한 음악 스타일을 고수한다[2].

현대 물질 만능주의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다각 면에서 접근을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과감하게 피력하였다. 그것은 마치 그가 음악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현재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삶과 사고를 대신하는 양상으로 보여 지면서, 동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커다란 공감대를 이끌어 냈고 동시에, 록 밴드 “넥스트”는 당대 대형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신해철이 발표한 앨범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밴드 넥스트(N.ex.T) 음악에 대한 특징들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갖는다[3].

## 2. 본 론

연구자는 넥스트 음악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로 열거한다.

첫째, 록 음악에 기반을 둔 진보적인 성향의 다양한 실험 음악이다. 1집 'Home' 앨범에서는 록음악에 미디움 악에 비중을 두고, 현란한 기타리프와 신디사이저 즉, 키보드 사운드를 주축으로 각종 효과음을 삽입하는 등 새로운 사운드를 시도한다[4]. 작품 대부분이 긍정적인 시각의 형태라기보다는 현대사회의 사실적인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을 직설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장르인 록을 앨범의 주류로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작품의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Fig. 1],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의 후렴부분에 단순한 멜로디로 우렁차고 힘 있는 제창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의 특징들은 공연에서 관객들이 함께 가창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공연장에서 더욱 열광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Fig. 1. The Destruction Of The Shell



Fig. 2. Komerican Blues

2집 앨범 'The Being'에서는 프로그레시브 록과 아트 록을 선보이게 되는데, 프로그레시브 장르의 주요 악기인 신디사이저를 앞세워 한국 록 음악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제시함과 동시에 넥스트만의 독창적인 사운드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5].

3집 'The World'는 기존음악과 국악의 협업작업을 시도하는데,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사운드라기보다는 2집 앨범에서 보여준 화려함에 새로운 실험적인 작업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4집 앨범 'A Space Rock Opera'는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하여 대

규모 오케스트라와 합창단과의 거대한 스케일의 록오페라를 완성시켰다. 5집에서는 저예산으로 8,90년대의 고전적인 록 스타일을 구현하면서, 정통 록음악으로 회귀하는 독특한 행보를 보인다.

넥스트 앨범의 전체적인 진행은 록 장르이기는 하지만, 정해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화려한 드럼비트와 기타리프, 속도감, 키보드의 화려한 진행 등을 통한 확장성으로 넥스트만의 개성 있는 사운드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넥스트의 음악 다른 록밴드와 다르게 신디사이저 지나 건반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컬리스트이자, 키보디스트였던 신혜철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데뷔곡 ‘그대에게’에서 알 수 있듯이 신디사이저가 다른 악기에 비해 중추적인 역할하고 있다[6].



Fig. 3. Komerican Blues

[Fig. 3]은 Komerican Blues 신디사이저 전주 부분으로 남성적인 강렬한 록에 기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멜로디의 색채를 풍부하고 다양한 음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디사이저를 사운드 전반에 내세우고 있다. 신디사이저는 다른 악기와 함께 멜로디라인을 더 화려하고, 과감하게 연주함으로써 풍성한 사운드로 작품들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셋째, 자신만의 사상과 의지를 철학적인 내용의 노랫말을 주로 사용하였다. 신혜철이 등장하기 전까지 한국 대중음악은 사랑과 이별 노래가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랑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신혜철은 가요계에 등장과 동시에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깨버린다. 차별화된 독특한 가사는 솔로앨범부터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큰 성공하게 된다. 그는 멜로디에 맞춰 가사를 창작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작품이 표현하는 주제를 더욱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가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솔로앨범에서 넥스트로 오면서 더욱 더 심화된다. 점점 현대사회의 지배적 가치, 자본주의의 문제점, 종교의 이면적 모습, 낙태, 공동체 의식의 파괴, 윤리의식의 상실 등 더욱 저돌적이고, 직설

적인 가사로 현대사회의 결점 등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불안한 사회적인 문제점이나, 각종 매스컴에서의 뉴스거리, 화제 거리가 모두 그의 작품의 주제가 되고, 가사가 되었다[7].

아직도 세상을 보이는 대로 믿고 편안히 잠드는가  
 그래도 지금이 지난 시절 보단 나아졌다고 믿는가  
무너진 백화점 끊겨진 다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 어느 누구도 비난 할 순 없다  
우리 모두 공범일 뿐  
발전이란 무엇이며 진보란 무엇인가  
누굴 위한 발전이며 누구를 위한 진보인가  
 <넥스트3집 앨범 : “세계의 문” 가사 중 일부>

※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를 다루면서, 현대사회의 발전에서 오는 부작용을 비판하고 있다. 많은 작품에서 위와 같은 가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 등을 가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선거, 야구, 올림픽, 전쟁 등 현대사회 전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투영하면서 일기처럼 일상을 작품의 주제로 정하고 이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강렬하고 육중한 사운드를 쌓고 융합하는 특징을 갖는다. 반대로 그로 인해 다소 무거운 앨범의 분위기를 상반된 분위기로 유머러스하고, 익살스럽게 풍자하기도 하면서 앨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환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들이 독창적인 넥스트만의 음악적인 센스가 돋보이게 한다. 그리고 꿈과 이상이 갖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여 희망적인 메시지를 표현하기도 함으로써 주제를 제한 없이 사용하는 등 작사의 능력 역시 천재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간혹 한글가사 또는 멜로디로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영어와 랩(rap), 내레이션(narration)을 적극 활용하면서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해진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8].

난 창공을 나는 새처럼 살 거라고 생각했다.  
 내 두 발로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라 내 날개  
 밑으로 스치는 바람 사이로 세상을 보리라 맹세했다.  
 내 남자로서의 생의 시작은 내 턱 밑의 수염이  
 나면서가 아니라 내 야망이 내 자유가 꿈틀거림을 느끼면  
 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아버  
 지인가 가족에게 소외 받고 돈 벌어  
 오는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은 권  
 위의 이름을 잃어지고 비틀 거린다.

<넥스트1집 앨범 : “아버지와 나 ii” 가사 중 일부>

※ 작품 전체를 내레이션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표현하고  
 자하는 주제를 일반적인 대중음악과는 다른 형식으로 자  
 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앨범의 타이틀 넘버는 아  
 니었지만, 내레이션이 많은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면  
 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

넷째, 다양한 창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대학가요제  
 데뷔 당시, 부드러운 중저음의 아이돌스러운 가창법을  
 구사하던 그는 넥스트 2집 앨범에서는 고음역대의 샤우  
 팅 창법을 적극 활용하면서, 록 보컬리스트의 무한한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날아라 병아리’와 같은 서정성 짙은  
 작품에서는 떨리고, 여린 반(半)가성 형태로 가창을 하  
 면서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9]. 또 4집 록오페라에서는  
 완벽하진 않지만, 성악의 마르카토(marcato) 발성과 유  
 사하게 가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트래쉬 메탈에서 사  
 용되는 그로우링(growling) 창법, 샤우팅(shouting) 창법  
 을 구사하면서, 각각의 장르에 걸맞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가창법을 사용하였다. 이 중 [Fig. 4]는 3집 앨범 중 ‘나  
 는 쓰레기야(part1)’ 라는 작품의 후렴 부분이다. 마치 동  
 물의 울부짖음을 표현하는 듯한 그로우링(growling) 가  
 창법을 활용하여 자극적인 가사와 함께 어우러져 후렴부  
 멜로디가 마치 야생동물의 포식자가 날카로운 이빨로 먹  
 이를 사냥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면서 신해철 만의 독  
 특한 작품의 개성을 잘 살리고 있다[10].



Fig. 4. I'm trash. part1

현재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발성법을 연구하고 있는  
 오늘날의 가창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에는 모호한 발성  
 을 사용하고 있지만, 앨범의 요소요소마다 걸맞은 형태  
 의 소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그만의 유니크한 가창법을  
 구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하드록음악의 전성기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유행하던 날카롭고, 타이트하게  
 내어 지르는 가창법이 유행하는데, 넥스트 역시 유행하  
 는 대중음악의 범위 내에서 신해철 만의 개성 있는 사  
 운드를 영리하게 체계적으로 풀어내고 있다[11].

앨범마다 각각의 객원보컬리스트와 같은 형태로 작  
 품을 접근하고 있는데, 노래는 하나의 음악을 완성키는 일  
 부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상상 1994년 가을통권 5호  
 “존재의 문을 열어라.”> 김탁환 氏와의 대답에서 “목소  
 리도 하나의 악기라고 녹음을 했었고 느낌을 전달하는  
 도구라는 이외에는 다른 의미를 그다지 부여하지 않았  
 다.”라고 하였다[12]. 이는 다양한 음색(tone)과 가창법  
 을 변화시키면서 보컬리스트로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자연스럽게 흥성부에서  
 두성부로 이어지는 성구전환이 매끄럽지 못해, 중음역대  
 에서 고음역대로 바로 진행되는 경로의 가창 멜로디를  
 선호하는 것을 작품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Fig. 5]는  
 2집 앨범 수록곡 중 ‘이중인격자’의 후렴부분이다. 세 번  
 째 마디에서 비약적으로 고음으로 가는 방식을 채택하여  
 가창하고 있음을 악보를 통해 알 수 있으며, [Fig. 6]  
 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마디에서 고음역대로 바로 이  
 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13].



Fig. 5. Double 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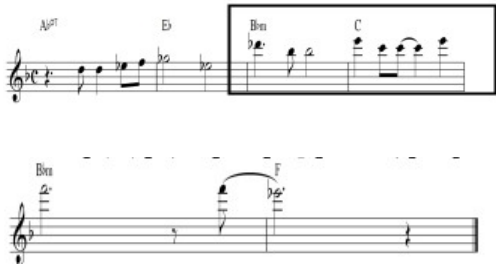


Fig. 6. Lazenca, Save Us

다섯째, 넥스트는 컨셉트 앨범(Concept album) 형태를 띄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는 그들이 표현해 내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컨셉트 형식 앨범을 발표하기도 하는데, 그 역시 앨범의 주제를 통일함으로써 각 작품마다의 스토리를 표현하는 컨셉트 앨범 형식을 지향하고 있다. 넥스트 앨범 역시 'Home', 'The Being(존재)', 'The World(세계)', 'A Space Rock Opera', '개한민국' 등 각 앨범마다 하나의 주제 또는 이야기들로 각각의 작품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다[14].

1집 앨범 수록곡

01. 인형의 기사 Part I(instrumental)
02. 인형의 기사 Part II
03. 도시인
04. Turn Off The T.V.
05. 외로움의 거리
06. 증조 할머니의 무덤가에서(instrumental)
07. 아버지와 나 PART I
08. 집으로 가는 길
09. 아버지와 나 PART II(instrumental)
10. 영원히.

※ 수록된 작품들이 앨범 주제이자 제목인 'Home'과 연관되어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같이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는 컨셉트 지향은 발표되는 다른 앨범에서도 비슷한 형식을 띄고 있다.

여섯째, 록 음악 이외에도 비대중적인 장르를 선호한다. 솔로앨범으로 활동할 당시 그는 각종 음원차트 1위를 독식하면서, 많은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하지만, 돌연

솔로활동을 중단하고, 새로운 자신만의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팀을 출범시킨다. 그들의 음악은 록에 기반을 두고 여러 장르를 융합하는 새로운 음악이었다[15]. 당시 국내에서의 록 음악시장은 사양산업과 마찬가지로 대중들에게 홀대받는 장르였고,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그가 록 음악을 선택한 것에 대해 대중들과 평론가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넥스트로서의 첫 앨범이 발표됨과 동시에 평론가들의 극찬과 함께 록 음악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도 변화시키게 된다. 그와 동시에 국내 가요시장의 수준을 한 차원 승화시켰다는 호평을 받게 된다. 이후 발표되는 앨범마다 한국대중음악계에 이슈가 되었으며, 방송출연을 하지 않아도 가요프로그램의 1위 후보로 오르거나, 상위권에 랭크되었다[16]. 넥스트는 '한국대중음악은 단순한 멜로디의 사랑 노래만이 히트를 칠 수 있다.' 라는 선입견을 깨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으며, 이후 발표되는 앨범마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뛰어난 음악적인 저력을 보여주었다.

### 3. 결 론

현재 대중음악은 대체적으로 장시간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을 인고하여 창작하기 보다는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고 있으며, 작품의 질적 향상보다는 한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처럼 취급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중음악에서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창작활동을 통해 작품성과 몰입감을 줄 수 있는 작품들로 대중들에게 어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해철이 이끌었던 “넥스트”가 음악을 임하는 자세는 아티스트로서 자질과 한국대중음악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경제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가요시장이 유행하는 한 장르만을 선호한다면 현재 ‘K-pop’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국가요는 분명히 짧은 수명으로 마감할 밖에 없다. 비록 이러한 문제점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중음악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아티스트로서의 능력을 향상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컴퓨터 음악의 발전으로 때로는 간편해진 창작활동은 너무나도 쉽고 가벼운 작업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자신만의 개성 있는 음악을 창작하는 것은 자칫 옛날 스타일로 비추어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아티스트는 자신만의 컬러를 고수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음악적 성장을 통해 대중들에게 어필하여야 한다. 물론 현재 주도하는 음악장르나 현상들을 마냥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러나 뮤지션으로써의 꾸준한 자기개발과 창작능력을 강화시켜 과감하고 새로운 시도 등으로 활동을 이어간다면 한국대중음악은 ‘K-pop’으로서의 또 다른 유행을 이끌어내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 References

- [1] Yu-lia Kwon et al. Shin Hae-chul and Next City. Munhwa-Dabooks. October. 2015.
- [2] Seung-Ho Ji, Hae-chul Shin. Shin Hae-chul's An eloquent speech. March. 2008.
- [3] Hae-chul Shin. the Devil Shin Hae-chul. December. 2014.
- [4] <http://www.izm.co.kr/contentRead.asp?idx=2614>. May 2005.
- [5] <http://www.izm.co.kr/contentRead.asp?idx=2618>. February. 2006.
- [6] <http://www.izm.co.kr/contentRead.asp?idx=2619>. February. 2006.
- [7] <http://kpopmuseum.com/>
- [8] [https://ko.wikipedia.org/wiki/Shin Hae-chul](https://ko.wikipedia.org/wiki/Shin_Hae-chul). May 2017.
- [9] The Dong-A Daily News. Page 14. September. 1992.
- [10] Beom-Jin Jo , T.S. Cho. A Study on Arrangement through Avoid Note and Tension Note The Society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3. No11 pp.349-355, 2015.  
DOI: <https://doi.org/10.14400/jdc.2015.13.11.349>
- [11] Hae-Kwon Lim, Tae-Seon Cho A Study of Individuality of Seung Hwan Lee's Music Represents The Society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3. No11 pp.406-415, 2015.  
DOI: <https://doi.org/10.14400/jdc.2015.13.11.409>
- [13] Interview. Hangeore-newspaper. November. 1997
- [14] Joon-Soo Kim, Tae-seon Cho. Shin Hae-chul's album analysis(1th, 2th Album). KAIS(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December.2016
- [15] Joon-Soo Kim. Shin Hae-chul's Music analysis -N.ex.T Album analysis.- a master's thesis. Chungwoon Univ. Graduate. February. 2018.
- [16] Ki-Young Jeon. Basic of vocal training. May. 2016.

### 김 준 수(Joon-Soo, Kim)

[정회원]



- 2018년 2월 : 청운대학원 졸업
- 2018년 9월 : 청운대학교 외래교수
- 현 알바트로스 뮤직 소속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

### 조 태 선(Tae-Seon, Cho)

[종신회원]



- 2010년 2월 : 실용음악학회 회장
- 2018년 1월 : 한국문화예술융합협회 회장
- 2016년 6월 : 대한가수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 2018년 9월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